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여 수출 일부 허용, 신고방식 변경,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추진배경

- 3월 6일에 제정된 고시가 8월 5일자로 만료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MB(Melt blown)필터 수급안정을 위한 고시 신규 제정 필요

○ 주요 내용

1. (정의) SB(Spunbond)가 결합된 도레이SMS(SB+MB+SB 결합)필터도 수급관리 대상에 포함
2. (신고)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대체하고,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기업 불편 해소
3. (수출) 원칙적 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내 수출 허용으로 완화하고,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 가능
4. (조정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판매업자 대상 조정명령 권한 유지

◆ 시행일 : 2020년 8월 6일 ~ 2021년 1월 5일 (5개월) 한시적 시행

○ 세부 내용

1. **(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함.
 -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2. **(신고)**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대체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함.
3. **(수출)**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함.
 -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
 -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함.
4. **(시행기간)** 2020년 8월 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 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하였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